

# 2009-2015년도 중국어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1차시험 문학영역 문항분석

김호\*

---

## ◁ 목 차 ▷

---

- I. 들어가는 말
  - II. 출제 문항의 형식 분석
    - 1. 2009-2013년도 문학영역 문항
    - 2. 2014-2015년도 문학영역 문항
  - III. 출제 문항의 내용 분석 및 제언
    - 1. 출제 문항의 내용 분석
    - 2. 몇 가지 제언
  - IV. 나오는 말
- 

## I. 들어가는 말

중국어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하에서 중국어임용시험으로 약칭한다)은 최근 몇 년간 문제의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어 왔다. 먼저 2009년도 시험을 기점으로 시험 시수도 총2차에서 총3차로 변화하였다. 형식면에서도 2009년도 이전 주관식시험(단답형과 서술형)에서 1차는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2차는 서술형으로 3차는 수업실연 방식으로 변화였다. 이것은 중국어임용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관심 증가로 인한 임용시험 자체의 변별력 마련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2014년도 시험부터 총3차의 시험이 다시 총2차로 줄어들고 시험의 유형도 1차는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2차는 수업실연으로 변경, 시행되고 있다.

---

\*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본문은 시험문항이 공개되지 않는 수업실연은 제외하고 문항이 공개되는 1차 시험 문항을 연구범위로 한다.<sup>1)</sup> 2007년 및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볼 때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중국문학을 교수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듯 2009-2015까지 총 7번의 1차 시험에서 문학관련 문항이 전체 시험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sup>2)</sup> 그러나 임용시험 문학문항의 출제범위가 古代부터 當代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또한 현재 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과과정에서 어학 수업에 비해 문학 수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까닭으로 응시생들에게는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문학문항이 전체 문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록 높지 않더라도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점에 착안하여 본문은 2009년도부터 2015년도 까지 총7년 동안의 임용시험가운데 문학 영역의 문항을 연구범위로 하여 먼저 문학문항을 출제 유형 및 문항 수 그리고 배점기준으로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과거 7년간 문학문항의 출제 경향을 도출해 보려고 한다. 동시에 이상의 분석을 통해 평가지표로서의 문학문항이 합리성과 변별력을 동시에 갖추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II. 출제 문항의 형식 분석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도와 2014년도에는 임용시험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런 까닭으로 본문에서는 먼저 시험형식을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2009년도부터 2013년도를 하나의 범위로, 2014년도와 2015년도를 또 하나의 범위로 묶어서 순차적으로 문항 유형, 문항 수 및 배점 비율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 
- 1) 본문에서 말하는 1차 시험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포함하고, 2014년도와 2015년도는 1차 시험만을 가리킨다.
  - 2) 이 문제에 대한 2009-2010년도의 통계는 김호, 〈2009-2010년도 중국어과 중등교사 임용시험 분석〉(《中國語文學誌》 33, 2010년 8월, 493-518쪽)을 참고할 것.

## 1. 2009-2013년도 문학문항

### 1) 2009년도 문학영역 문항

문항 번호	배점	1차 시험 유형 및 소재	문항 번호	배점	2차 시험 유형 및 소재
17	2	고대문학사의 문학유파 및 작품 이해 - 宋: 辛棄疾 - 淸: 桐城派 - 明: 公安派 - 宋: 西崑派 - 明: 三言二拍	4	25	思想內容과 言語形式의 観点에서 唐代 古文運動과 五·四 新文化運動중의 文學 革命의  공통점과 상이점 - 唐代 古文運動 - 五·四 新文化運動중의 文學革命
18	2	現·當代文學에 대한 이해 - 5·4 新文化運動 - 魯迅의 만들어낸 阿Q形象 - 創造社 구성원 - 50년대 중국문학계 - 傷痕文學			
19	2	고전문학 장르에 관한 이해 - 近體詩의 次韻 - 元 雜劇의 형식 - 唐代 講唱 文學의 底本: 變文 - 元 散曲의 形式 - 漢賦의 발전양상			

20	2	악부민가의 내용 이해 - 樂府民歌: 《陌上桑》			
37	1.5	현대문학작품의 내용 이해 - 施蛰存 《梅雨之夕》			
38	1.5				
39	2	고전산문작품의 현대중국어 번역 - 陶淵明 〈五柳先生傳〉 - 《論語·里仁》 - 韓愈 〈師說〉 - 《論語·子路》			
40	1.5	고전산문작품의 내용 이해 - 歐陽脩 《朋黨論》			

먼저 2009년도 1차 시험에서 문학관련 문항은 총 40문항(80점 만점) 가운데 문항수로는 8문항(20%), 배점으로는 14.5점(18.1%)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는 총 4문항(100점 만점) 가운데 1문항(25점)으로 문항 수나 배점에서 모두 2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배점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난이도가 어려운 문항에 추가하는 2.5점 문항이 없다는 점에서 출제의 입장에서 2009년도 문학관련 문항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기획,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전문학과 현대문학<sup>3)</sup>의 출제비율은 2차 시험 4번 문항이 두 가지 소재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5문항(9.5점)/3문항(5점)으로 고전문학관련 문항이 다소 많이 출제되었다.

문항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하나는 문학사적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차 시험의 17, 18, 19번과 2차 시험의 4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문학 텍스트의 내용 이해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37, 38, 39, 40번 문항이 여기에 속한다.

3) 본문에서 말하는 현대문학은 논지 전개의 편의성을 위해서 근대문학과 당대문학을 포함한 개념으로 본다.

2) 2010년 문학영역 문항

문항 번호	배점	1차 시험 유형 및 소재	문항 번호	배점	2차 시험 유형 및 소재
12	2	(唐)韓愈 작품 이해	4	25	唐代 詩歌流派的 특징 서술하기 - 岑參 〈逢入京使〉 - 李商隱 〈無題〉 - 王維 〈新夷塢〉
		- 〈雜說〉 - 〈師說〉 - 〈答李翊書〉 - 〈師說〉 - 〈獲麟解〉			
17	2	(清)洪昇 《長生殿》의 내용 이해			
		- 白居易 〈長恨歌〉 - 王安石 〈明妃曲〉 - 白樸 〈梧桐雨〉 - 湯顯祖 〈還魂記〉 - 洪昇 〈長生殿〉			
18	2	고전소설에 대한 이해			
		- 魏晉 志怪小說 - 唐代 傳記小說 - 宋代 話本小說 - 明代 吳承恩 《西遊記》 - 清代 曹雪芹 《紅樓夢》			
19	2	고전시가의 내용 이해 - (唐)杜甫 《月夜》			
36	1.5	문학사적 관점에서 현대 문학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			
		- 郁達夫: 〈沈淪〉 - 老舍: 〈駱駝祥子〉 - 王朔: 〈頑主〉 - 茅盾: 〈子夜〉 - 沈從文: 〈邊城〉			
37	2	현대문학 주요작가의 작품 내용			

		이해 - 巴金 《隨想錄》			
38	2	魯迅과 그 작품 이해			
		- 《狂人日記》			
		- 《藥》			
		- 《孔乙己》			
		- 《阿Q正傳》			
- 《野草》					
- 《吶喊》					
39	2	고전산문작품의 내용 이해 - 蘇軾 〈超然臺記〉			
40	2	고전산문작품의 사상경향 이해 - 柳宗元 〈愚溪詩序〉			

2010년도에는 1차 시험 40문항(80점 만점)가운데 문학문항은 문항수로는 총9 문항(22.5%), 배점으로는 17.5점(21.9%)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는 4문항(100점 만점)가운데 1문항(25점)이 출제되어 문항 수나 배점에서 모두 2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배점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난도가 어려운 문항에 부가하는 2.5점 문항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출제의 관점에서 2010년도 문학관련 문항 역시 그다지 어렵지 않게 기획,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2010년도 1, 2차 문학문항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고대문학과 현대문학의 출제 비율이 문항 수나 배점을 막론하고 고전 문학이 다소 많이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즉 2차 시험 4문항(25점)은 고전시가에서 출제되었고 1차 시험도 고전문학(6문항, 12점)과 현대문학(3문항, 5.5점)의 비율로 출제되었다.

문항의 유형을 살펴보면 2009년과 마찬가지로 문학사적 지식을 묻는 문항(1차 17, 18, 36번, 2차 시험 4번 문항)도 출제되었지만 작품의 이해를 묻는 문항(1차 12, 19, 37, 38, 39, 40번 문항)이 더 많이 출제되었다. 이 점은 중국어임용시험에 있어 고전과 현대를 불문하고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3) 2011년 문학영역 문항

문항번호	배점	1차 시험 유형 및 소재	문항번호	배점	2차 시험 유형 및 소재
25	2	현대문학작품의 내용 이해 林語堂 《吾國與吾民》	4	25	고전문학비평문장과 현대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 - 白居易 《與元九書》 - 白居易 《議文章》 - 袁枚 《隨園詩話》 - 袁枚 《答園論詩書》 - 魯迅 《故鄉》 - 徐志摩 《猛虎集·我不知道風是在哪一個方向吹》
30	2	현대문학작품의 내용 이해 - 梁實秋 《談時間》			
31	2.5				
33	2	고전문학의 주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 - 柳宗元의 문학주장 - 北宋 柳永詞 - 吳敬梓 《儒林外史》 - 洪昇 《長生殿》과 孔尚任 《桃花扇》			
34	2	고전 시가의 장르별 특성 이해 - 古詩와 樂府			
35	2	현대문학사의 작가, 작품, 주제 및 특징에 대한 이해 - 張恨水 〈啼笑因緣〉 - 丁玲 〈太陽照在桑干河上〉 - 錢鍾書 〈圍城〉 - 曹禺 〈雷雨〉 - 莫言 〈紅高粱〉			
36	1.5	唐詩 內容 이해 - 張繼 〈楓橋夜泊〉			
37	2	현대문학작품의 내용 이해 - 張愛玲 《封鎖》			
38	2	현대문학작품의 내용 이해 - 卞之琳 〈航海〉			

39	2	역사서의 내용 이해 - 司馬光 《資治通鑒》		
40	1.5	고전산문작품의 내용 이해 - 劉禹錫 〈陋室銘〉		

2011년도에는 1차 시험 40문항(80점 만점)가운데 문학문항은 문항수로는 총 11문항(27.5%), 배점은 21.5점(26.9%)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는 4문항(100점 만점)가운데 1문항(25점)이 출제되어 문항 수나 배점에서 모두 2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배점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난도가 어려운 문항에 부가하는 2.5점 문항이 하나만 출제되었다. 동시에 1.5점의 배점이 주어진 문항이 2개나 된다. 이로 볼 때 2011년도 문학문항도 어렵지 않게 기획·출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2011년도 1, 2차 문학문항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2010년과 달리 고대문학과 현대문학의 출제 비율이 문항 수나 배점을 막론하고 균형 있게 출제되면서 현대문학 부분이 좀 더 강조되고 있다. 즉 2차 시험 4번(25점)은 고전과 현대문학 소재를 같이 이용하여 출제되었고, 1차 시험은 고전문학(5문항, 9점)과 현대문학(6문항, 12.5점)의 비율로 출제되어 현대문학 문항이 다소 많이 출제되었다.

문항의 유형을 살펴보면 2009년과 마찬가지로 문학사적 지식을 묻는 문항(1차 33, 34, 35번, 2차 시험 4번 문항)도 출제되었지만 작품 내용의 이해를 묻는 문항(1차 30, 31, 36, 37, 38, 39, 40번 문항)이 더 많이 출제되었다. 여전히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임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대표적인 예가 문학문항에서 유일하게 2.5점의 배점이 부여된 1차 31번 문항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 아직 지나가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我們所能掌握的尙未逝去的時間, 如何去打發它)」를 묻는 것으로 문장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면 정답을 찾을 수 없게 설계되었다. 즉 문장에 대한 이해가 이 문항의 관건이 된다는 의미이다. 2차 시험 4번 문항도 비록 문학사적 지식을 묻고 있지만 (A-白居易 《與元九書》와 白居易 《議文章》)와 (B-袁枚 《隨園詩話》와 袁枚 《答園論詩書》)에 예시된 문장의 내용을 가지고 (C-魯迅 《故鄉》), (D-徐志摩 《猛虎集·我不知道風是在哪一個方向吹》)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제시된 문장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4) 2012년 문학영역 문항

문항 번호	배점	1차 시험 유형 및 소재	문항 번호	배점	2차 시험 유형 및 소재
16	2.5	고전문학사에 대한 이해 - 劉勰《文心雕龍》 - 韓愈 - 姜夔 - 李贄 - 陳維松	4	25	고전문학에 대한 현대문학가의 관점 (A) - 胡適《文學改良芻議》 - 林紓《給蔡元培書》 (B) - 施乃庵《水滸傳》 - 司馬相如《子虛賦》 - 謝靈運《石壁精舍還湖中作》 - 杜甫《石壕吏》
17	2	고전문학작품(소설)에 대한 문학사적 이해 - 《世說新語》 - 《離魂記》 - 《清平山堂話本》 - 《兒女英雄傳》			
18	2	고전문학작품(희곡)에 대한 문학사적 이해 - 湯顯祖《邯鄲記》 - 白樸《牆頭馬上》 - 董解元《西廂記諸宮調》 - 王實甫《漢宮秋》 - 關漢卿《竇娥冤》			
19	2	고전문학작품(시가)의 내용 이해 - 李白《春思》			
27	2.5	현대문학작품(산문)의 내용 이해 - 朱自清《荷塘月色》			
31	2.5	현대문학작품(산문)의 내용 이해 - 老舍《養花》			
35	2	현대문학작품에 대한 문학사적 이해 - 郁達夫《沈淪》 - 王蒙《組織部來了個年輕人》 - 韓少功《爸爸爸》			

36	2	고전문학작품(시가)에 대한 이해 - 項羽《垓下歌》 - 杜牧《題烏江亭詩》			
37	2	현대문학작품(시가)의 내용 이해 - 艾青《大堰河-我的保姆》			
38	2	현대문학작품(희곡)의 내용 이해 - 《白毛女》			
39	2	고전문학작품(산문)의 내용 이해 - 王安石《里仁爲美》			
40	2	고전문학작품(산문)의 내용 이해 - 韓愈《原道》			

2012년도 1차 시험에서 문학문항은 40문항(80점 만점)가운데 문항수로는 총 12문항(30%), 배점으로는 25.5점(31.8%)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는 4문항(100점 만점)가운데 1문항(25점)이 출제되어 문항 수나 배점에서 모두 2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2012년도 1, 2차 문학문항에서 고대문학과 현대문학의 출제 비율을 살펴보면 고대문학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2차 시험 4번(25점)은 고대와 현대문학의 소재를 공유하고 있지만, 1차 시험에서는 고대와 현대문학이 각각 7문항(14.5점)과 5문항(11점)으로 고대문학 방향의 문항이 좀 더 많이 출제되었다. 그리고 배점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난이도가 어려운 문항에 부가하는 2.5점 문항이 전체 5개 가운데 3개나 문학문항에서 출제되었다. 이를 통해 2012년도에는 문학문항이 난이도를 조정하는 중요한 문항으로 취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항의 유형을 살펴보면 문학사적 지식을 묻는 문항(1차 16, 17, 18, 35번)도 출제되었지만 여전히 작품의 이해를 묻는 문항(1차 19, 36, 37, 38, 39, 40번 문항)이 더 많이 출제되었다. 즉,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임이 재삼 강조되고 있다.

5) 2013년 문학영역 문항

문항 번호	배점	1차 시험 유형 및 소재	문항 번호	배점	2차 시험 유형 및 소재
23	2	현대문학작품(희곡)의 내용 이해 - 高行健 《絕對信號》	4	25	각 시대 소설관련 인식의 변화 이해 - 《論小說與群治之關係》, 《漢書·藝文志》, 《儒林外史·序》, 《少室山房筆叢》
24	2	현대문학작품(소설)에 대한 설명 - 巴金 《家》 - 茅盾 《子夜》 - 張天翼 《華威先生》 - 趙樹理 《李有才板話》 - 梁斌 《紅旗譜》			
25	2.5	현대문화사조 이해 - 5·4 신문화 운동			
30	2.5	현대문학작품(산문) 내용 이해 - 梁啓超 《最苦與最樂》			
33	2	고전문학작품(산문)의 내용 파악 - 韓愈 《雜說》 - 王安石 《讀孟嘗君傳》			
34	2	고대문학사 주요 주제 이해 - 樂府民歌 - 唐代 傳記小說 - 《三國志》, 《水滸傳》, 《紅樓夢》 - 明代 前後七子, 唐宋派 - 明代 公安派			
35	2	현대문학사의 문학유파 - 1980년대 朦朧詩派			
36	2.5	고전문학작품(시가)의 주제 이해 - 古歌: 漢樂府詩 - 王勃 《山中》 - 駱賓王 《于易水送人》 - 杜甫 《八陣圖》 - 賈島 《三月晦日贈劉評事》 - 白居易 《藍橋驛見元九詩》			
37	2	현대문학사 문학 논쟁에 대한 이해 - 「主觀論」論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第三種人」論爭</li> <li>- 「革命文學」論爭</li> <li>- 「民族形式」論爭</li> <li>- 「兩個口號」論爭</li> <li>- 「文藝自由論」論爭</li> </ul>			
38	2.5	현대문학 작품(소설) 내용 이해 - 魯迅 《孔乙己》			
39	2	宋詞에 대한 문학사적 이해 - 李煜 詞 - 溫庭筠 詞 - 蘇軾 詞 - 周邦彥 詞 - 辛棄疾 詞 - 姜夔 詞			
40	2.5	고전산문 작품 내용 이해 - 《史記·項羽本紀》			

2013년도 1차 시험 40문항(80점 만점)가운데 문학문항은 문항수로는 총 12문항(30%), 배점으로는 26.5점(33.1%)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는 4문항(100점 만점)가운데 1문항(25점)이 출제되어 문항 수나 배점에서 모두 2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도 1, 2차 문학문항에서 고대문학과 현대문학의 출제 비율을 살펴보면 현대문학이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2차 시험 4번(25점)은 고전과 현대에서 소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문장을 문항의 소재로 공유하고 있지만, 1차 시험에서는 고전과 현대문학이 각각 5문항(11점)과 7문항(15.5점)으로 현대문학 방향의 문항이 다소 많이 출제되었다. 그리고 배점은 난이도가 높은 2.5점 문항 총 6개 가운데 5개(고대: 2문항, 현대: 3문항)가 문항 영역에서 출제되었다. 이 점에서 볼 때 2013년도 역시 2012년도와 마찬가지로 문학문항이 전체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항의 유형을 살펴보면 문학사적 지식을 묻는 문항(1차 24, 25, 34, 35, 37, 39번)이 작품의 이해를 묻는 문항(1차 23, 30, 33, 36, 38, 40번 문항)보다 더 많이 출제되었다. 이 점은 2013년도 이전의 문학문항의 출제경향과는 다소 경향을 달리하는 부분이다.

## 2. 2014-2015년도 문학문항

주지하다시피 2014년도부터 문학문항의 유형에 비교적 큰 변화가 있었다. 5지선다형의 1차 객관식과 2차 주관식 유형이 통합되어 모든 문항이 주관식(단답형, 서술형, 논술형) 유형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문항의 수는 줄어든 반면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 1) 2014년도 문학영역 문항

유형	문항번호	배점	전공A 문항의 유형과 소재	유형	문항번호	배점	전공B 문항의 유형과 소재
기입형	13	2	제시된 현대문학작품(희극)의 제목 쓰기 - 老舍《茶館》	서술형	2	4	중국고전산문(우언)의 주제 - 柳宗元《罷說》
	14	2	악부민가의 내용 파악 - 《子夜四時歌七十五首》		3	3	현대문학작품(소설)의 내용 파악 - 魯迅《希望》
	15	2	문학비평 저작의 명칭 쓰기 - 劉勰《文心雕龍》 - 鍾嶸《詩品》 - 《古詩十九首》	논술형	2	10	고전문학 작품과 현대문학 작품의 내용 파악 - 《論語·雍也》 - 王充《論衡·超奇》 - 成仿吾《新文學之使命》 - 魯迅《文藝與革命》
서술형	6	4	茅盾의 문학주장 - 暴露와 諷刺				

2014년도에는 1차 시험 전공A 21문항(50점 만점)가운데 문학문항은 문항수로는 총 4문항(19%), 배점으로는 10점(20%)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공B에서는 총 5문항(30점 만점)가운데 문학문항은 모두 3문항(60%)이고 배점은 17점(56.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공B 유형에서 전체문항가운데 문학

문항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 주목할 점이다.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공B형 2번의 복합적 논술 문항을 제외하고,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 각각 3문항(8점)과 3문항(9점)으로 매우 균형적인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문항 유형을 살펴보면 문학사적 지식을 묻는 문항3개(전공A 15(기입형), 4(서술형)번; 전공B 10(논술형))와 작품의 이해를 묻는 문항4개(전공A 13(기입형), 14(기입형); 전공B 2(서술형), 3(서술형)번 문항)가 출제되어 비교적 균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배점은 전공B 10번의 영향으로 문학사적 흐름을 묻는 문항의 비중이 다소 높다. 마지막으로 문항 배점은 문항 유형이 큰 폭으로 바뀐 관계로 어학과 문학의 아울러 상당히 균형 있게 출제되었고 이런 경향은 2015년도에도 지속된다.

## 2) 2015년 문학영역 문항

유형	문항 번호	배점	전공A 문항의 유형과 소재	유형	문항 번호	배점	전공B 문항의 유형과 소재
기입형	4	2	孟子와 王守仁의 학문주장 - 《孟子·盡心》 - 《陽明全書·大學問》	서술형	3	5	고전문학이론 이해 - 韓愈《送孟東野序》 - 《莊子·逍遙游》
	7	2	현대문학유파 및 사조에 대한 이해 - 京味, 京派		4	5	현대문학작품의 내용 이해 - 魯迅《故事新編·序言》
	8	2	唐玄宗과 楊貴妃를 소재로 하는 고전문학 작품 이해 - 白居易《長恨歌》 - 白樸《梧桐雨》 - 洪昇《長生殿》	논술형	2	10	주요 고전시사와 현대시의 창작경향 이해하기 - 岑參《走馬川行奉送出師西征》 - 李清照《醉花陰》 - 聞一多《發現》
	10	2	중국 현대 사상가의 학설이해 - 李澤厚《救亡壓倒啓蒙》				
서술형	4	5	고전산문작품을 현대 중국어로 번역하기 - 歐陽脩《朋黨論》				

2015년도 1차 시험 전공A에서는 문학문항이 전체 14문항(40점 만점) 가운데 문항수로는 총 5문항(35.7%), 배점으로는 11점(27.5%)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공B에서는 전체 출제문항 수 6문항(40점 만점) 가운데 3문항(50%)을 차지하고,

배점에서는 20점(5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공B의 논술형 2번 문항이 고전과 현대문학의 소재를 공유한 것을 제외하고,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출제 비율은 각각 4문항(14점)과 3문항(9점)으로 고전문학이 다소 많이 출제되었다. 특히 2015년도에는 고전산문작품의 일부를 현대 중국어로 번역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전공A의 서술형 4번 문항이 그것인데 이 문항은 유형적으로는 2009년도 1차 시험 39번과 유사하고 같은 해 40번 문항과는 내용적으로 중복되고 있다. 문항의 유형을 살펴보면 문학사적 지식을 묻는 문항(전공A 7, 8, 10번; 전공B 3(서술형), 2(논술형)번)이 작품의 이해를 묻는 문항(전공A 4(기입형), 4(서술형); 전공B 4(서술형)번 문항)보다 더 많이 출제되었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전체 문항에서 문학문항의 출제 비율은 아래와 같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차& 전공A	8(20%)/ 14.5(18.1%)	9(22.5%)/ 17.5(21.9%)	11(27.5%)/ 21.5(26.9%)	12(30%)/ 25.5(31.8%)	12(30%)/ 26.5(33.1%)	4(19%)/ 10(20%)	5(35.7%)/ 11(27.5%)
2차& 전공B	1(25%)/ 25(25%)	1(25%)/ 25(25%)	1(25%)/ 25(25%)	1(25%)/ 25(25%)	1(25%)/ 25(25%)	3(60%)/ 17(56.7%)	3(50%)/ 20(50%)

※ 문항 수(비율)/배점(비율)

이상의 내용을 통해 다음의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차 시험은 문항 수나 배점에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2014년과 2015년도는 이전에 비해 문학 문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하였다. 특히 전공B 시험에서 문항 수나 배점 모두 5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이전과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둘째, 문항 소재를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구분했을 때 출제 문항 수와 배점은 아래와 같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차& 전공A	5(9.5)/ 3(5)	6(12)/ 3(5.5)	5(9)/ 6(12.5)	7(14.5)/ 5(11)	5(11)/ 7(15.5)	3(8)/ 3(9)	4(14)/ 3(9)
2차& 전공B	0.5(12.5)/ 0.5(12.5)	1(25)/ 0(0)	0.5(12.5)/ 0.5(12.5)	0.5(12.5)/ 0.5(12.5)	0.5(12.5)/ 0.5(12.5)	1(4)/ 1(3)/ 1(10)	1(5)/ 1(5)/ 1(10)

※ 고전 문학(배점)/현대 문학(배점)/복합형 문항(배점)

문학문항가운데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출제 비율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고전 문학 문항이 다소 많이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차 시험&전공A 문항에 있어 고전문학은 총 35문항, 배점은 78점인데 비해 현대문학은 총 30문항, 배점은 58.5점을 차지하고 있다. 2차 시험&전공B 문항에 있어서도 7문항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소재를 공유하는 문제가 출제된 반면 3차례는 고전문학의 소재만 활용된 문항이, 2차례는 현대문학의 소재만 활용된 문항이 출제되었다. 다만 2014년도 문항의 유형이 바뀐 뒤로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활용 빈도가 거의 비슷하게 변화하였다.

셋째, 문학사적 지식을 묻는 문항과 문학작품의 내용을 묻는 문항의 출제 문항 수와 비율은 아래와 같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차& 전공A	3(6)/ 4(8.5)	3(5.5)/ 6(12)	3(6)/ 7(13.5)	4(8.5)/ 6(12)	6(12.5)/ 6(14)	2(6)/ 2(4)	3(6)/ 2(7)
2차& 전공B	1(25)/ 0(0)	1(25)/ 0(0)	1(25)/ 0(0)	0.5(12.5)/ 0.5(12.5)	1(25)/ 0(0)	1(10)/ 2(7)	2(15)/ 1(5)

※ 문학사 문항 수(배점)/문학작품 내용 이해 문항 수(배점)

문학사적 지식과 문학작품의 내용 이해를 묻는 문항의 비율은 1차 시험&전공A는 24개(50점)/33개(71점); 2차 시험&전공B는 7.5개(137.5점)/3.5개(24.5점)로 나타난다. 이점은 1차 시험&전공A에서는 문학사적 흐름을 묻는 문항보다는 개별 작품의 내용 이해를 측정하는 문항이 더욱 중시되었으나, 2차 시험&전공B 즉



서술형 혹은 논술형 문항에서는 문학사적 흐름에 대한 파악 여부를 통해 변별력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출제 문항의 내용 분석 및 제언

#### 1. 출제 문항의 내용 분석

여기서는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출제된 문학문항을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나누어 출제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전 7년 동안 중국어임용시험에서 문학문항의 출제 경향을 설명하는 동시에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기출 문항의 소재를 시기별, 장르별로 정리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고전문학		현대문학
先秦 兩漢	諸子散文 - 《論語》 : 「里仁」, 「子路」, 「雍也」 - 《莊子·逍遙游》 - 《孟子·盡心》	近代	- 梁啓超 《論小說與群治之關係》, 《最苦與最樂》
	歷史散文 - 《史記·項羽本紀》 - 《漢書·藝文志》	現代	문학 논쟁과 문단 동향 - 5·4 신문화 운동(2) - 文學革命 - 胡適《文學改良芻議》 - 林紓《給蔡元培書》 - 創造社
	文學理論		- 50년대 중국문학계 - 「主觀論」論爭 - 「第三種人」論爭 - 「革命文學」論爭 - 「民族形式」論爭 - 「兩個口號」論爭 - 「文藝自由論」論爭 - 京味, 京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王充《論衡·超奇》</li> </ul>		
	<p>漢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司馬相如《子虛賦》</li> </ul>		
	<p>樂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古詩十九首〉</li> </ul>		<p>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魯迅《野草》</li> <li>- 聞一多〈發現〉</li> <li>- 徐志摩《猛虎集·我不知道風是在哪一個方向吹》</li> <li>- 卞之琳〈航海〉</li> <li>- 艾青〈大堰河-我的保姆〉</li> </ul>
<p>魏晉 南北朝</p>	<p>散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陶淵明〈五柳先生傳〉</li> </ul> <p>小說</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志怪小說</li> <li>- 《世說新語》</li> </ul> <p>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謝靈運〈石壁精舍還湖中作〉</li> <li>- 〈子夜四時歌七十五首〉</li> <li>- 項翊〈垓下歌〉</li> <li>- 樂府民歌(2)</li> <li>- 〈陌上桑〉</li> <li>- 古歌: 漢樂府詩</li> <li>- 古詩와 樂府</li> </ul> <p>文學理論</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鍾嶸《詩品》</li> <li>- 劉勰《文心雕龍》(2)</li> </ul>		<p>小說</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魯迅 《阿Q正傳》(2), 《故事新編·序言》, 《故鄉》, 《吶喊》, 《狂人日記》, 《孔乙己》(2), 《藥》</li> <li>- 張恨水〈啼笑因緣〉</li> <li>- 茅盾《子夜》</li> <li>- 郁達夫《沈淪》</li> <li>- 老舍:《駱駝祥子》</li> <li>- 沈從文《邊城》</li> <li>- 丁玲《太陽照在桑干河上》</li> <li>- 錢鍾書《圍城》</li> <li>- 梁斌《紅旗譜》</li> <li>- 張愛玲《封鎖》</li> <li>- 巴金《家》</li> <li>- 張天翼《華威先生》</li> <li>- 趙樹理《李有才板話》</li> <li>- 施蛰存《梅雨之夕》</li> <li>- 王蒙《组织部來了個年輕人》</li> </ul>

		<p>散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魯迅 〈希望〉, 〈文藝與革命〉</li> <li>- 老舍《養花》</li> <li>- 林語堂《吾國與吾民》</li> <li>- 梁實秋《談時間》</li> <li>- 巴金《隨想錄》</li> <li>- 朱自清《荷塘月色》</li> </ul>
<p>唐</p>	<p>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近體詩에 대한 설명</li> <li>- 王勃〈山中〉</li> <li>- 駱賓王〈于易水送人〉</li> <li>- 王維〈新夷塢〉</li> <li>- 岑參(2) 〈逢入京使〉, 〈走馬川行奉送出師西征〉</li> <li>- 李白〈春思〉</li> <li>- 杜甫(3) 〈月夜〉, 〈石壕吏〉, 〈八陣圖〉</li> <li>- 張繼〈楓橋夜泊〉</li> <li>- 賈島〈三月晦日贈劉評事〉</li> <li>- 白居易(3) 〈長恨歌〉(2), 〈藍橋驛見元九詩〉</li> <li>- 杜牧〈題烏江亭詩〉</li> <li>- 李商隱〈無題〉</li> </ul>	
	<p>小說</p>	

	<p>傳記小說(2) - 개념, 《離魂記》</p> <p>散文 古文運動 韓愈(9) - 문학이론 - 〈原道〉, 〈師說〉(2), 〈雜說〉(2), 〈答李翊書〉, 〈獲麟解〉, 〈送孟東野序〉 柳宗元(3) - 〈愚溪詩序〉, 문학관, 〈罷說〉 白居易(2) - 〈與元九書〉, 〈議文章〉 劉禹錫 - 〈陋室銘〉</p>		
	<p>講昌文學 - 唐代 傳記小說</p>		<p>戲曲 - 老舍 《茶館》 - 《白毛女》 - 曹禺 《雷雨》</p>
宋	<p>詩 - 西崑體 - 王安石 〈明妃曲〉</p>		<p>문학이론 - 茅盾: 문학관 - 成仿吾 〈新文學之使命〉</p>
	<p>詞 - 溫庭筠 - 柳永詞(2) - 辛棄疾(2) - 姜夔(2) - 李煜 - 蘇軾 - 周邦彥 - 李清照 〈醉花陰〉</p>	當代	<p>문학사조 및 문예이론 - 傷痕文學 - 李澤厚 「救亡壓倒啓蒙」 - 1980년대 朦朧詩派</p>
	<p>散文 - 歐陽脩 〈朋黨論〉(2) - 蘇軾 〈超然臺記〉 - 司馬光 《資治通鑒》 - 王安石(2)</p>		<p>戲曲 - 高行健 《絕對信號》</p> <p>소설 - 王朔 《頑主》 - 韓少功 《爸爸》</p>

	〈里仁爲美〉, 〈讀孟嘗君傳〉 - 小說 - 話本小說 - 《清平山堂話本》		
元	雜劇 - 白樸(3) 〈梧桐雨〉(2), - 白樸《牆頭馬上》 - 董解元《西廂記諸宮調》 - 王實甫《漢宮秋》 - 關漢卿《竇娥冤》		
明	小說 - 三言二拍 - 《三國志》 - 《西遊記》 - 《水滸傳》(2) - 《少室山房筆叢》 散文 - 公安派(2) - 唐宋派 - 《陽明全書·大學問》		- 莫言《紅高粱》
	傳記 - 湯顯祖 《還魂記》, 《邯鄲記》 文學理論 - 李贄		
清	散文 - 桐城派 - 袁枚《隨園詩話》 - 袁枚《答園論詩書》 戲曲 - 洪昇《長生殿》(3) - 孔尚任《桃花扇》 小說 - 曹雪芹《紅樓夢》(2) - 吳敬梓《儒林外史》(2) - 《兒女英雄傳》 詞 - 陳維松		

※( )안의 숫자는 출제에 이용된 빈도를 표시한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문학문항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즉, 문항의 소재가 고대 및 현대문학사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편벽되지 않으면서 각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 장르를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漢賦, 樂府民歌, 唐詩, 古文運動, 變文, 宋詞, 宋詩, 元曲, 明代文言小說, 公安派, 桐城派, 5·4 新文化運動, 魯迅, 創造社, 傷痕文學, 朦朧詩派 등이 문항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그 반면에 다소 인지도가 떨어지는 현대문학작품들 예를 들어 施蛰存 《梅雨之夕》(2009년 1차 시험)과 문학사적 지식을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고전산문 《論語》, 陶淵明 〈五柳先生傳〉, 韓愈 〈師說〉과 歐陽脩의 〈朋黨論〉 등은 수험생의 고문 독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현대문 번역 혹은 내용의 요지만을 묻고 있다.

그 이외에 가장 많이 활용된 문항 소재를 살펴보아도 같은 경향성을 찾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유와 노신의 경우이다. 고전문학에서는 다양한 소재가 이용되었으나 唐代의 저명한 문장가인 한유는 모두 9차례나 문항 소재로 사용되었다. 현대문학에 있어서 노신의 경우는 무려 12차례나 문항 소재로 이용되었다. 이외에도 백거이는 5차례, 두보는 3차례나 문항의 소재로 이용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출제자들이 중국문학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문항의 소재로 활용해왔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다음 문학사 문항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고전문학이나 현대문학을 막론하고 소설과 희곡 등 속문학 분야의 문항이 비교적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0년 17번 문항과 2015년도 8번 문항은 공통적으로 白樸 〈梧桐雨〉, 洪昇 〈長生殿〉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명대 소설과 전기 그리고 청 희곡과 소설 관련 문항이 적지 않게 출제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현대문학에서도 소설과 희곡관련 문항이 전체 현대문학 문항의 과반을 넘을 정도로 많이 출제되었다.

둘째, 첫 번째 경향성 이외에 문학사 문항의 출제에서 우리는 두 가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문학사의 사적 맥락을 읽어 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다수 출제되고 있다. 2012년도 1차 35번 문항은 세 가지 현·당대 문학 현상을 제시하고 이것에 해당하는 작가와 작품을 보기에서 고르는 것이다. (가)는 創造社를 (나)는 雙百方針을 (다)는 尋根文學를 설명하는 것으로 각각 20년대, 50년대, 80년대를 대표하는 문학 집단 혹은 문학사상을 이해해야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이다. 바꾸어 말하면 개별 작가와 작품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함께 각 작품의 창작 배경인 문학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단순한 문학사적 지식이 아닌 작품이 대표하는 당시의 문학 현상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문항 유형이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하나의 문학작품의 수용관계를 묻는 문항이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1차 시험 36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문항은 「捲土重來」라는 성어를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다만 이 성어가 어떤 문학사적 배경 하에서 출현한 것인지를 알고 있다면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용이했을 것이다. 제시된 예시문 가운데 (가)는 項羽가 劉邦의 군대에 패하고 烏江에까지 도망쳐 와서 자신의 처지를 읊은 시인 〈垓下歌〉이다. (나)는 晚唐의 저명한 詩人 杜牧(803-852)이 천 여 년이 지난 뒤 項羽가 자살한 곳인 烏江에 와서 烏江亭에 題하여 지은 〈題烏江亭詩〉이다. 두목은 이 시에서 「강동의 자제 영준한 사람 많으니, 흙먼지 날리며 돌아올 날 알 수가 없구나(江東子弟多英俊, 捲土重來未可知)」라는 유명한 내용을 남긴다. 바꾸어 말하면 항우의 〈垓下歌〉 내용이 두목 시의 제제가 되었다는 문학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었던 문항으로 2010년 1차 시험 12번 문항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제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문학사 문항가운데 단일한 문학 주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여러 문학 장르의 소재로 이용되어지는 현상을 파악해야 하는 문항이 자주 출제 되었다. 2010년 1차 시험 12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문항은 (唐)玄宗과 楊貴妃의 이야기가 唐詩(白居易 〈長恨歌〉), 元曲(白樸 〈梧桐雨〉)과 淸傳奇(洪昇 〈長生殿〉)에서 공통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문항이다. 특히 정답인 洪昇 〈長生殿〉은 白居易 〈長恨歌〉과 白樸 〈梧桐雨〉에서 소재를 취하고 있다. 다만 형식적인 면에서 제시된 설명의 내용처럼 〈長生殿〉이 第4折이라는 傳記에서만 나타나는 형식적 특징을 갖고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고전문학의 소재와 장르적 특징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문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문항의 소재는 2011년도 33번에서는 답지의 하나로 그리고 2015년도 8번 문항에서는 2010년도와 마찬가지로 정답으로 이용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개별 문학가 혹은 문학작품의 내용과 창작 경향에 대한 문학사적 이해를 묻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1차 시험 16번 문항은 보기에서 주어진 문

학사에 관한 서술가운데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는 문항이다. 주어진 다섯 개의 서술은 각각 劉勰 《文心雕龍》의 성격과 내용, 韓愈 고문 창작의 특징과 풍격, 남송사인 姜夔 詞의 내용과 창작풍격, 晚明 李贄 동심설의 내용, 청초 陳維松 詞의 풍격과 내용을 물어보고 있다. 2012년도 1차 시험 17번과 18번 문항도 같은 유형의 문항이다. 17번 문항은 제시된 네 개의 고전소설작품의 내용을 보기에서 고르는 것이고, 18번 문항은 원 잡극과 명 전기의 대표작품에 대한 서술가운데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셋째, 문학문항에 있어 고전이나 현대를 막론하고 작품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다. 즉, 제시된 문장에 대한 깊이 정확한 이해가 문항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2012년 19번 문항은 李白의 〈春思〉를 보기로 주고 시의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묻고 있다. 즉, 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측정하고자 한 것이다. 사실 시의 내용을 묻는 문항은 난이도 면에서 다소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시의 내용 이해를 묻는 문항이 자주 출제되었다. 예를 들어 2013년 1차 시험 36번 문항은 古歌(漢樂府詩)를 보기로 제시하고 이 시의 주제와 가장 가까운 것을 답지에 제시된 王勃 〈山中〉, 駱賓王 〈于易水送人〉, 杜甫 〈八陣圖〉, 賈島 〈三月晦日贈劉評事〉, 白居易 〈藍橋驛見元九詩〉의 시구 중에서 고르는 것이다. 비록 문학 문항이지만 사실상 시의 내용을 정확히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이다.

또 2015년도 1차 시험 4번 문항은 孟子와 王守仁의 학문 주장인 良知를 묻고 있다. 良知는 중국 철학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명제이나 현재 국내 중어중문학과 교과과정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제시된 지문도 《孟子·盡心》과 《陽明全書·大學問》의 내용으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다소 어렵게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왕수인의 사상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 문장을 미리 학습하지 않은 상태라면 두 번째 제시문 《陽明全書·大學問》: 「(양지)라는 것은 맹자가 말한 시비지심으로 사람들이 모두 갖고 있는 것이다. 시비지심은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이고 배우지 않아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양지)라고 일컫는다(良知者, 孟子所謂是非之心, 人皆有之者也. 是非之心不待慮而知, 不待學而得, 是故謂之(良知)」라는 내용에서 良知라는 개념을 도출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문항은 첫 번째 제시문에서 정답을 유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사람이 배우지 않고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양능이라고 한다. 생각하지 않고 알 수 있는 것은 (양지)이다. 어린 아이들은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 않고 성장함에 이르러 그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인이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의이다.(人之所不學而能者, 其良能也; 所不慮而知者, 其(良知)也. 孩提之童, 無不知愛其親者, 及其長也, 無不知敬其兄也. 親親, 仁也; 敬長, 義也).

즉, 만약 수험생들이 《孟子·盡心》의 인용문 가운데 「人之所不學而能者」→「其良能也」라는 관계에서 「良能」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 뒤이어 오는 「(人之) 所不慮而知者」→「其良知也」의 관계에서 문장 전후의 대구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良知」라는 개념을 도출해 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전산문분야에서 寓意이 출제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014년도 1차 시험 3교시 전공B의 2번 문제가 좋은 예이다. 이 문항은 유종원의 〈巖說〉이라는 우언의 문장 일부분을 현대중국어로 바꾸고 전체 문장의 주제를 묻는 것이다. 먼저 현대중국어로 번역하는 부분은 「초나라 남부에 사냥꾼이 있었는데 능히 대나무로 만든 피리를 불어 여러 야수들의 울음소리를 낼 수 있었다(楚之南有獵者, 能吹竹爲百獸之音)」이다. 이 번역 부분은 제시된 예시문의 다른 부분보다 비교적 쉬운 내용을 출제했다고 판단된다. 사실상 우언의 특징은 일정 부분의 단어나 내용을 잘 알지 못해도 특정 부분의 내용만을 이해해도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문항을 예로 들면 「지금 자신의 역량을 중시하지 않고 외부의 힘만을 의지하는 자가 꿈의 먹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今夫不善內而恃外者, 未有不爲羶之食也)」라는 문장의 마지막 부분만 이해할 수 있으면 전체 우언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우언의 출제도 문장 독해력을 중시하는 출제의 기본 취지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우언은 2009년 이전에도 종종 출제가 되었다. 예를 들어 2007년 22번 문항은 유종원의 〈三戒·臨江之麋〉 우언을 이용하여 출제한 것으로 유종원의 〈巖說〉과 같은 맥락에서 출제된 것이다.

넷째, 다만 2014년도부터 출제유형이 바뀌면서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발견된다. 즉, 문항의 유형이 단답형 혹은 단순 서술형 그리고 논술형으로 바뀌면서 문항 자체

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2013년도까지 1차 시험은 5지선다형이었고 2차 시험도 일정 양의 자료를 제시하고 그 내용에 근거해서 답안이 구성되도록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주어진 내용을 잘 숙지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답안을 구성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2009년 2차 시험 4번 문항은 주어진 지문의 내용을 근거로 思想內容과 言語形式의 관점에서 唐代 古文運動과 五·四 新文化運動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서술하는 것이다. 비록 문학사적 지식이 필요로 하는 문항이지만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답안 구성이 매우 까다로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문항이 출제된 이후 매년 비슷한 유형의 문항이 계속해서 출제되었다. 2010년도 2차 4번, 2011년 2차 4번, 2012년 2차 4번, 2014년 논술형 2번, 2015년 논술형 2번 등이 모두 같은 유형의 문항이다. 이런 문항들은 문학사적 사전지식이 필요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기에 제시된 내용에 대한 치밀한 이해를 통해 충분히 답안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문학사에 대한 단순한 암기를 통해 답안을 작성했을 경우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문항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4년도부터는 비교적 적은 양의 자료를 이용해 정답을 유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까닭으로 일부 문항에 있어 이전에 비해 난이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2014년도 1차 서술형 6번 문항을 살펴보자. 이 문항은 「暴露與諷刺」라는 문예논쟁에 있어 모순의 주장을 예시하고 예시문의 내용을 개괄하고 해당 문예논쟁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이다. 가장 주목할 것은 제시된 지문 내용이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즉 제시된 내용을 통해 「暴露與諷刺」이라는 모순의 문학관을 개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제시된 예시문을 통해 「暴露與諷刺」라는 문예논쟁을 개괄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극히 드문 예이지만 한 두 문항은 문항 변별력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2015년도 전공A 10번 문항은 李澤厚의 「救亡壓倒啓蒙」이라는 주장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이택후가 갖고 있는 중국사상사에서의 위치와 그의 이론이 갖는 가치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문항에 제시된 내용으로는 정답을 유추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택후에 대한 사전 학습이 없이는 제시된 지문의 내용만으로 「救亡壓倒啓蒙」이라는 관점을 생각해

내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 내용적인 의미는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변별력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드는 문항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만약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문항이 계속 출제된다면 중국어임용시험의 범위가 폭발적으로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2. 몇 가지 제언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중국어임용시험은 2009년도 이전과 비교할 때 두 차례의 형식상의 변화를 겪으면서도 문항의 질적 수준에 있어서는 상당한 완성도를 보여주어 왔다. 문학영역 문항도 예외는 아니어서 문학사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사실들과 가치 있는 원전의 내용을 문항의 소재로 이용하여 왔다. 아래에서는 현재까지의 문항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수험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 출제하기

상술한 바와 같이 문학문항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출제하였지만 충분한 변별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심지어는 일부 문항은 동일한 소재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발견된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2010년 17번 문항과 2015년도 8번 문항은 공통적으로 唐 현종과 양귀비를 소재로 한 여러 장르의 문학 작품을 이용하였다. 이외에도 2015년도 전공A 6번 문제의 「推敲」를 물어보는 문항은 사실상 2006년 25번 문항으로 출제되었었다. 두 문항을 비교해 보면 그 유사성을 더욱 확연히 발견할 수 있다.

	내 용
2006년 25번 문항	25. 다음의 일화에서 비뚤된 성어를 2자의 한자로 쓰고, 밑줄 친 ㉠을 우리말로 번역하시오. [4점] 據唐遺史載：“鳥赴京考試，於驢上吟㉠鳥宿池邊樹，僧敲月下門。遇著京尹韓吏部，沒有讓路。泊擁至馬前，則曰：‘欲作敲字，又欲作推字，神游詩賦，致衝大官。’愈曰：‘作敲字佳矣。’”

2015년 전공A 6번 문항	<p>6. 下面短文中③是由①和②組成的詞，請寫出③。「2分」</p> <p>傳說唐代詩人賈島是中國古典詩史上以“苦吟”而著名的一位詩人。有一天，他騎著驢作詩，得到鳥宿池邊樹，僧( ① )月下門兩句。第二句“( ① )”字又想改用“( ② )”字，猶豫不決，就用手做其動作，無意中碰上了韓愈，向韓愈說明其原因。韓愈想了一會兒說，還是用原來的字好。後來就用“( ③ )”來比喻斟酌字句、反復琢磨。</p>
--------------------	---

이 부분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단지 두 문항이 유사하다는 점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록 같은 소재와 내용을 공유하지만 문항의 구성에 따라 적정한 난이도가 구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문학문항은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소재를 출제에 활용한다고 해도 충분한 변별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항이 변별력이 갖기 위해서는 일정한 난이도를 갖추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매번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2) 시험 범위를 가능한 확대하지 않기

이 문제는 위의 (1)의 설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사실상,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가운데 대다수가 문학문항의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출제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이런 까닭으로 명문화할 수는 없지만 출제에 있어 모두들 공감하는 일정한 범위가 정해지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고전문학부터 현대문학까지를 범위로 하면서 당대문학을 시험 범위에서 제외시켜 임용시험의 범위를 다소 좁혀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부터 2015년도 까지 문학문항 가운데 당대문학과 관련된 문항은 모두 일곱 문항이 출제되어 전체 문항 수에서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일곱 문항 가운데 당대문학만을 소재로 문제를 구성한 경우는 高行健 《絕對信號》(2013년도 1차 시험 23번), 朦朧詩派(2013년 1차 35번), 李澤厚 「救亡壓倒啓蒙」(2015년 전공A 10번) 등 세 문항뿐이고 다른 4문항은 현대문학을 출제하는데 보조 자료로 활용되었을 뿐이다. 즉, 주로 최근에 이르러 당대

문학이 임용시험의 소재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점에서 필자는 조심스럽게 문학사 문항 출제에 있어 적절한 출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고전문학에서도 일정 부분을 출제 범위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지금까지 출제에 활용되었던 소재들이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임을 위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그동안 출제되었던 문항 소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출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 3) 문항 변별력이 자체적으로 갖추어 지도록 일정한 장치 필요

문항을 출제할 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문항의 자체 결함으로 문항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지난 7년간의 중국어임용시험에서 적어도 문학 문항에서는 그런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문항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변별력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문항이다. 즉, 문항 자체는 매우 우수하나 현재 교육체계상 수험생 대다수가 학습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문항은 문항으로 출제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015년도 전공A 10번 문항(李澤厚의 「救亡壓倒啓蒙」에 관한 주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소재는 이택후라는 사상가에 대해 학습을 했는지 안했는지가 관건이다. 만약 이택후에 대한 학습이 국내 중국어 교과과정에서 보편화 되어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까닭으로 제시된 지문의 내용만으로는 답안을 유추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대적으로 2015년도 1차 시험 4번 孟子와 王守仁의 사상적 주장인 良知를 물어보는 문항 역시 수험생들이 접해보지 못했을 내용이지만 문항 안에 해결의 실마리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출제 유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2013년도까지의 서술형 문항은 예시문에서 답안의 실마리를 일정 부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도부터는 단답형 문항의 출현으로 제시문에서 답안을 유추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항안에 답안을 찾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해당 문항은 문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

로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첨언하고 싶은 것은 본 논문의 분석대상은 아니지만 중국어임용시험 2차 시험의 형식 문제이다. 현행 2차 시험은 수업실연과 심층면접으로 나뉜다. 중국어 과목은 영어와 함께 외국어인 까닭으로 심층면접과 수업실연을 모두 중국어로 작성하고 면접을 진행한다. 이 점은 중국어가 외국어 교과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험 방식은 중국어 언어 능력만을 과도하게 검증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어가 외국어 교과인 만큼 수업실연 영역의 경우 원어로 답안을 작성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심층면접의 경우까지 중국어로 진행되는 것은 의미 있는 평가기준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심층면접 시험의 의도는 수험생이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인성과 자질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이 중국어 원어로 진행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현재까지 출제된 심층면접 문제가 대다수 교육현장에서 부딪치는 실제적 문제에 대한 예비교사의 생각과 처리 방법을 물어보는 것인데, 이 경우 오히려 모국어로 예비 교사로서의 인성과 자질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현행 임용시험이 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라는 언어능력 측정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심층면접에서는 모국어로 교사로서의 가치관과 인성 그리고 교육관 등을 깊이 있게 검증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향후 임용시험의 개편에 있어 이 점은 반드시 개선되기를 희망해 본다.

## V. 나오는 말

본문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어임용시험에서 출제된 문학관련 문항의 유형 및 문항 수 그리고 배점 및 출제 경향 등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차 시험에서 문학 관련 문항은 문항 수나

배점에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문학문항가운데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출제 비율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고전문학 문항이 다소 많이 출제되었다. 다만 2014년도 문항 유형이 바뀐 뒤로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활용 빈도가 거의 비슷하게 변화했다. 그리고 문항 유형에 있어 1차 시험&전공A에서는 개별 작품의 내용 이해를 측정하는 문항이 더욱 중시되었으나, 2차 시험&전공B에서는 문학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문항이 더 많이 출제되었다.

둘째, 지난 7년간 출제된 문학문항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문학사의 사적 맥락을 읽어 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다수 출제되고 있다. 또한 문학문항에 있어 고전이나 현대를 막론하고 작품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셋째, 향후 중국어임용시험 출제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출제하고 「시험 범위를 가능한 확대하지 않기」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문항 변별력을 자체적으로 구비」하는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 【參考文獻】

- 2009년도 중국어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문제(1차, 2차)  
 2010년도 중국어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문제(1차, 2차)  
 2011년도 중국어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문제(1차, 2차)  
 2012년도 중국어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문제(1차, 2차)  
 2013년도 중국어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문제(1차, 2차)  
 2014년도 중국어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문제(전공A, 전공B)  
 2015년도 중국어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문제(전공A, 전공B)  
 李修生, 《中國文學史綱要》,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3.  
 章培恒, 駱玉明主編, 《中國文學史新著》,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1.  
 김호, 〈2009-2010년도 중국어과 중등교사임용시험 분석〉(《中國語文學誌》 33, 2010년8월, 493-518쪽.

**【英文提要】**

An Analysis of the Question Items of the Literature Section of the 1st 2009-2015 Chinese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s for Secondary School

This text deals with the question items set in the literature section of the Chinese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s for a total of 7 years (2009-2015) for the purpose of research. First of all, it intends to analyze the content of the examination question items set for 7 years based on question type, the number of question items, distribution of marks, etc. In addition, it intends to infer a tendency of the question items of the literature section of the examinations for the last 7 years through this process of the analysis. Finally, it intends to make several suggestions that are thought to be needed for the question items of the literature section (the question items as criteria) to have both rationality and discriminating power - the suggestions to be made through the analysis above.

**【主題語】**

2009-2015 Chinese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s for Secondary School, the literature section, an analysis of the question items, the content of the examination question items, a tendency of the question items

투고일: 2015. 10. 15 / 심사일: 2015. 10. 20~11. 5 / 게재확정일: 2015. 11. 10